

참여연대·민변 ‘삼성 의혹’ 검찰 고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6일 삼성그룹이 임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 조성하고 감사 등에게 떠값을 건넸다고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것과 관련해 이견희 회장 등을 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 출신의 김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금품 제공’ 의혹의 진위 여부는 검찰 수사로 가려지게 됐다. 이들 단체가 고발한 인사는 이 회장과 이학수 삼성 부회장 및 전략기획실장, 김인주 삼성 사장 및 전략기획실장, 또 우리은행 및 굿모닝신한증권 관계자이다.

참여연대 등은 고발장에서 김 변호사의 진술을 토대로 “이 회장 등이 삼성 계열사들에 손실이 생기는 것을 알면서도 이 회장의 아들 재용씨의 재산 증식과 보호를 위해 계열사와 재용씨 사이의 각종 유가증권 거래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즉, “1999년 2월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의 목적이 회사자금 조달이 아니라 재용씨의 재산을 불러주고 지배권을 승계해 주기 위한 것이었으며 2001년 3월 제일기획, 에스원, 삼성SDS 등 9개 계열사가 재용씨의 e삼성, 시큐아이닷컴 등의 주식을 사준 것도 이들 기업의 실적이 부진해 재용씨가 재산상 손실을 볼 것이 우려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의혹 사건을 수사해 허태화·박노빈 에버랜드

이견희 회장 등 5명 대상...비자금·검찰 떠값 등 혐의



민변·참여연대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서초동 민변사무실에서 삼성비자금 의혹 관련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맨 오른쪽부터 민변 헌택이 사무총장, 김인영 참여연대 사무총장. /연합뉴스

전·현직 사장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 등이 전환사채 발행을 진행했음에도 검찰 수사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사건과 관련 없는 이들이 수사 대상이 되도록 조작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특히 “이 회장 등이 계열사별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김 변호사 등 임원 명의의 은행 및 증권계좌

가 불법적으로 개설돼 사용됐으며 정치인, 경제부처 및 국제청 공무원, 검사·판사, 재야 법조인, 학계, 언론계 등에 거액의 현금이나 선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은 따라서 “이 회장 등이 삼성 지배권을 승계하기 위해 업무상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불법 행위를 했으며 불법 비자금을 만들어 로비를 한 점은 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배임중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사건 성격상 대검찰청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潘 총장 선출 때 일본이 끝까지 반대”

불탄 前 UN대사 자서전서 밝혀

지난 200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선출할 당시 마지막까지 반 총장에게 반대표를 던졌던 나라는 일본이었다고 존 불탄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5일 밝혔다.

그동안 반 총장 선출 투표과정에서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상임이사국이 아닌 섬나라’가 반대표를 던졌다는 얘기가 흘러나와 일본이 반대표를 던졌을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해 왔지만 책임있는 관계자로부터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불탄 전 대사는 이날 발간한 자서전 ‘항복은 선택이 아니다(Surrender is not an option)’에서 이같이 밝혔다.

불탄 전 대사는 지난 2006년 7월25일 유엔 안보리 비공식 회의의 1차 유엔 사무총장 예비투표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선호하는 사람에게 투표했다면서 “반 후보의 득표결과에 만족했지만 (인도 출신 유엔 사무차장이었던) 사시 타루르 후보도 좋은 성적을 내 놀랐다”고 적어 미국은 1차 예비투표부터 반 후보를 지지했음을 시사했다. 당시 1차 예비투표에서 반 후보는 찬성 12표를, 타루르 후보는 찬성 10표를 각각

득표, 1.2위를 차지했다. 불탄 전 대사는 이어 9월 14일 실시된 2차 예비투표에서 반 후보는 찬성 14표, 반대 1표를 얻어, 자신이 거의 결정적이었지만 반대 1표가 상임이사국에서 나왔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게 문제였다고 적었다.

그는 특히 자신은 한국과 일본간의 외교적 긴장관계를 고려할 때 “개인적으로 반대표가 일본에서 나왔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면서 “그래서 (유엔주재 일본대사인) 오시마 대사를 만나서 (반 후보를) 지지하도록 일본정부의 입장을 바꿀 것을 설득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9월28일 실시된 3차 예비투표에서 반 후보가 찬성 13표, 기권 1표, 반대 1표를 얻자 불탄 전 대사는 그 다음날 오시마 대사를 만나 반 후보에 대한 일본의 반대투표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으며 오시마 대사는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고 불탄 전 대사는 밝혔다.

일본이 막판까지 반 후보의 유엔 사무총장 선출에 반대한 국가임을 확인한 것이다. 그는 오시마 대사가 “유엔 사무총장 선출을 마무리짓고, 일본이 고립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가 반 후보를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중, 우주 이어 남극탐사 본격화



최초의 달 탐사위성인 ‘창이(嫦娥) 1호’ 발사에 성공한 중국이 남극 탐사에도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철도건설공업집단 소속 남극 탐사기지 건설요원 189명은 남극에 설치된 2개의 탐사기지 확장공사를 벌이기 위해 6일 베이징을 출발했다. 이들은 상하이에서 남극탐사선 ‘쉐 퉁호’에 탑승, 이달 중순께 남극 탐사기지의 종산기지와 창청기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들은 앞으로 2~3년동안 2개 탐사기지에 머물면서 기지 확장공사를 벌일 예정이며 공사는 남극의 여름철인 12월부터 2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984년 이후 2개 탐사기지에 거주하며 탐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219명의 대원들은 이번에 세번째 남극 탐사기지 건설 부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세번째 탐사기지는 남극에서 가장 높은 해발 4천 93m 지점인 돔A지역으로 7개의 망원경과 음향 레이더 탐지기 1대가 설치된다. /베이징=연합뉴스

멕시코 최악 폭우

기록적인 폭우로 한 때 전 육지 면적의 80%가 물에 잠겼던 멕시코 타바스코주(州) 비아에르모스에서 5일 주민들이 헬기로부터 보급품을 내리고 있다. 타바스코주에서 기록 침수로 최소한 2만명이 지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AP=연합뉴스

기록적인 폭우로 한 때 전 육지 면적의 80%가 물에 잠겼던 멕시코 타바스코주(州) 비아에르모스에서 5일 주민들이 헬기로부터 보급품을 내리고 있다. 타바스코주에서 기록 침수로 최소한 2만명이 지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AP=연합뉴스

고발 또 고발...바람 잘 날 없는 삼성

정치권 특검 요구 ‘反삼성’ 기류 고개

시민단체들이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의혹과 관련해 6일 삼성을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삼성이 또 다시 검찰 수사대상에 올랐다. 특히 정치권이 삼성 관련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고, 이번 사건이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반부패 연대’의 매개고리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자칫 불안한 대선 정국에 얽혀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삼성 기류’ 다시 고개드나=삼성엔 김 변호사의 폭로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전면 부인하면서도 여론의 항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변호사의 폭로가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실체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폭로 내용이 워낙 메가톤급이어서 삼성이 정·관청, 검찰, 언론 등 사회 요소요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삼성공화국론’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가 제기한 주요 의혹 가운데 하나인 에버랜드CB 편법 배정사건은 삼성의 후계구도와 관

련된 것으로 삼성은 10여년 전에 발생한 이 사건으로 인해 지금까지 편법 경영권 승계 논란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삼성이 ‘반삼성 기류’ ‘삼성공화국론’으로 몰살을 앞섰던 것은 2005년 이른바 ‘X파일’ 사건이 터졌을 때로, 당시에도 삼성은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을 받다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뒤 지난해 초 8 천억원의 사회환납을 골자로 하는 ‘2·7 선언’으로 이를 일단락지었다.

◇신경영 20주년 앞두고 ‘뒤송송’=인사 관리가 철저하기로 유명한 삼성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종의 ‘내부고발’로 인해 이견희 회장의 취임 20주년을 앞두고 그룹 수뇌부의 분위기가 뒤송송해졌다. 삼성은 다음달 1일 이 회장의 취임 및 신경영 선언 20주년을 맞아 5일에 기념식을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변호사의 폭로로 이같은 행사 일정과 계획들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삼성 관계자는 “김 변호사의 폭로로 그룹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상황에서 이런 행사들이 어떻게 치러질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삼성 ‘검찰 조사 성의껏 임하겠다’

삼성그룹은 참여연대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등 시민단체가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와 관련해 삼성을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6일 “항우 검찰에서 조사하면 성의껏 임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엔 “그룹에서 근무했던 직원의 문제로 국민 여러분과 격정해주는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이번 일이 시작 감정에 의한 보복성 폭로로 시작된 것이기는 하지만 향후 검찰에서 조사하면 성의껏 임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은 “최근 샌드위치에 처한 우리 경제의 현실과 환율 하락, 고유가 등으로 어려워진 경영환경을 이겨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업 경영에 집중해 도전자로 도약할 때에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분쟁에 경영 역량을 분산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12월 15일 시행확정!!

돈되는 자격증!! 초창기 시업을 노려라!

‘부동산대출중개사’가 뜬다!

자격기본법 제5733호에 의해 시행된 직업공인자격
자격취득자 중 취업희망자 우선 권면! 학생·주부·직장인들에 인기최고!

1. 시골 창업에 '현명한 선택'이다

2. '부동산대출중개사' 자격증 취득

3. '부동산대출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의 기회

4. '부동산대출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의 기회

5. '부동산대출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의 기회

6. '부동산대출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의 기회

문의: 062-434-7857

마술(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이란 신비로움과 신의 힘을 나타내는 영적능력이다. 마술을 통해 마음대로 물건을 움직이게 하고, 물건을 없애거나, 물건을 보이게 하고, 물건을 숨이게 하는 등, 마술은 신비로움과 신의 힘을 나타내는 영적능력이다. 마술을 통해 마음대로 물건을 움직이게 하고, 물건을 없애거나, 물건을 보이게 하고, 물건을 숨이게 하는 등, 마술은 신비로움과 신의 힘을 나타내는 영적능력이다.

수료/졸/대/상수

- 1. 마술의 원리, 마술의 역사, 마술의 종류
- 2. 마술의 원리, 마술의 역사, 마술의 종류
- 3. 마술의 원리, 마술의 역사, 마술의 종류

무료 초·중등 어린이 마술 교실 특강

- 1. 마술의 원리, 마술의 역사, 마술의 종류
- 2. 마술의 원리, 마술의 역사, 마술의 종류
- 3. 마술의 원리, 마술의 역사, 마술의 종류

순천 교육장소: 매곡동 북부신촌길 통상중유리터널길 10동
 문의: (062)434-7857

매직&매직 아카데미 ☎(062)434-7857